

청소년의 성의식- 개방일로

청소년과 성병/에이즈(제2회)

청소년과 성병/에이즈캠페인은 연재기획으로 5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향후 연재될 주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위험요인

제3회: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실태와 유해환경

제4회: 청소년의 성/에이즈예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제5회: 외국의 청소년 성병/에이즈예방교육

>> 십대의 성행태

중학생 6명 중 1명(17%)은 키스한 경험이 있고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1명(10.7%)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호서대 김혜원 교수팀에 각각 연구 의뢰한 '국내 중·고생의 성의식과 성교육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성경험은 남고생 13.5%, 여고생 8.1%이며 원조교제 경험은 여고생 1.5%, 남고생 1.1%, 임신시키거나 임신한 경험은 남학생 2.2%, 여고생 10.8%로 나타났다.

>> 성 지식 부족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여전

성행동 뿐만 아니라 성의식 또한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의식 변화가 두드러졌다. 문제는 개방된 성의식에 비해 10대의 성지식이 지나치게 얕다는 사실이다.

성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 피임을 해보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8%에 불과했다. 성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6.5점에 불과했다.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전한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남성=능동적, 여성=수동적'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관계를 여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중 남학생은 '성충동'과 '호기심' 때문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중적이고 성차별적인 기성사회의 성문화가 고스란히 재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10대의 성은 '열려있는 듯 닫혀있다'.

>> 10대의 성욕

아이들을 성욕을 가진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성교육의 출발점이라고 박현이씨(서울 YMCA 청소년성분화센터 팀장)는 말한다. 그들이 성욕구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을 해방감을 느낀다.

10대가 성충동이 가장 강한 시기임을 부인하는 기성세대는 없다. 그러면서도 기성세대가 짜 놓은 사회규율은 10대를 성적 욕구가 없는 존재,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 속에서 아이들은 숨이 막힌다.

교육부의 이번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대로 성충동은 10대의 주요 고민사항이다. (남고생 22.3%, 여고생 10.3%) 그러나 10대의 성욕을 금기시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성욕은 음지에 갇혀 버렸다.

10대가 성중동이 가장 강한 시기임을 부인하는 기성세대는 없다. 그러나
 면서도 기성세대가 짜 놓은 사회규율은 10대를 성적 욕구기 없는 존재로
 무성(無性)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 속에서 아이들은
 숨이 막힌다.

>> 포르노

소년들의 비공식적 성 교과서인 포르노는 이제 초등학교
 생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은 세운상가나 청계천
 을 기웃거리며 또는 집안의 장롱을 뒤지며 빨간 테이프
 를 찾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음란물은 인터넷을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인터넷 전용선이 깔린 지금은 못 볼 것이 없다. 가
 까운 PC방만 가도 음란물이 디렉토리 별로 정리되고 있
 어 생각만 있으면 얼마나 선생님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포르노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조석희군(고 2년)말이
 다.

>> 원조교제

10대의 성은 세대 내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세대 밖
 에서는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의 성은 세대 내
 에서는 남용되고 있고 세대 밖에서는 거래되고 있다.

10대가 세대 밖의 사람들과 맺고 있는 성적 관계의 대
 표적인 양식이 바로 원조교제이다. 여고교사가 여고생과
 원조교제하고 1백20여명의 남자와 원조교제를 한 여고
 생이 나타나는 등 원조교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갈 데 가
 지 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의 양상은 유혹에 휩싸인 어른들이 10대를 부추기
 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돈에 눈 뜨' 10대들이 오히려 어
 른들을 유혹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개중에는 2대
 1서비스를 제시하며 어른들을 유혹하는 10대도 있다.

요령이 좋은 10대는 새까마담이 되어 친구들을 소개하
 고 거마비를 쟁기기도 한다. '이 친구는 처녀니까 돈을
 더 내세요' 라고 흥정을 시도하는 10대도 있다.

지난해 경찰은 이 '부적절한 교제'를 집중 단속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곧
 이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아도 '부적절한 도움'을 주
 고받으려 했던 당사자들은 스스로 파멸했다. 서로가 서로
 를 이용하려는 이기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용당하는 상
 처만을 남겼을 뿐이다.

>> 임신·낙태

10대 낙태가 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
 혼자의 낙태율이 더 높았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비혼임신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비혼
 모 비율도 1984년에는 10대가 24.9%였던 것이 1998년
 에는 50%로 늘었다.

10대 낙태의 가장 큰 문제는 낙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최정윤 간사는 '임
 신을 한 순간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고 내수롭지 않게 여
 킨다.

일곱 번이나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도 있으며 낙태수술
 을 마친 후 임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성관계
 를 맺었다가 다시 임신된 여성도 있다"라며 걱정했다.

(시사저널/김은남·고재열기자)